



도시브랜드 변경 논의 다시 '원점'

<Only Jeju>

도 학술용역심의회 또 '재검토'... 활용계획 마련 주문 내년 예산 확보 등 차질 속 사업 추진 사실상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간 활용하고 있는 제주 도시브랜드 'Only Jeju (온리 제주)' 변경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학술용역추진을 위한 심의를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결정이 나면서 내년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월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2019년 하반기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제출한 '제주도 도시브랜드디자인 리뉴얼 사업'이 재신청됐지만 심의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용역 시행 후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지난 2월 학술용역 심의를 신청했지

만 심의 결과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따른 재검토 결정에 담당부서는 설득 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월 예정된 정기 학술용역심의 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술 용역 심의가 통과돼야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설득논리 마련 등 어떻게 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008년 개발된 제주도시브랜드 'Only Jeju Island'의 인지도 미흡으로 청정제주의 홍보와 도시이미지 가치 제고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해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제주다운 도시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적 통합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표다.

최근 도시브랜드와 품질인증마크(JQ)가 혼동되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추진됐던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이 도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백지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담당부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각 올레행정시스템과 도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도민 42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공무원)·70.4%(도민)가 제주도시브랜드 리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함께 만든 김치로 나눔 실천해요" 9월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애월읍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에 전달할 김치를 만들고 있다.

호우·태풍 피해에도... 재해보험 가입 저조

태풍 전후 피해 큰 콩·감자 보험 가입률 10~20% 내외 당근도 절반 갓 넘는 수준

농가 필요성 인식 부족 영랑도 "가입 적극 홍보·독려"

최근 제주지역에 집중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차산업 농가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적극적인 유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작물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률은 감자 13%(739ha), 콩 27%(1542ha), 당근 56%(775ha) 등으로 낮은 편이다. 그나마 양배추 농가가 95%(886ha)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농가가 재해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작물이라는 점이다.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5494ha로 집계됐다. 태풍 전 피해는 2013.3ha이며, 태풍 이후에는 3480.7ha가 접수됐다. 작목별 피해 면적을 보면 콩 1361ha(태풍 전 416.2·태풍 후 944.8ha)로 가장 많았으며 당근 1100ha(태풍 전 562.1·태풍 후 537.9ha), 감자 991ha(태풍 전 432.5·태풍 후 558.5ha) 등의 순이다.

제주도는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대파

는 ha당 100만~2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생계구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정작물 출렁 대파(파종 지원) 방지 및 시장격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자·당근 경영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서귀포시 피해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보험 가입률은 전국 대비 높은 편"이라면서도 "정부도 재난 지원금 대신 재해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공동주택관리 '유사사업' 지원 안돼? 입주자 안전 위해 모호한 기준 바꿔야"

도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일동)은 '제주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성민·문종태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를 통해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이번 조례 개정안은 5년 이

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 된다"며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5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 ▷사

용 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의 경우에 한해 지원 상한금액의 20% 가산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의원은 "현재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3년 이내 다시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어진 예산 내에서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추석 맞이 외국인 한마당 도, 14일 제주대체육관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주주민센터와 함께 '2019년 외국인주민 한가위한마당'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제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고향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만남의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유학생 등 1500명이 참여한다.

체험행사로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해 무료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 생활지원상담 등이 진행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한가위 음식 나눔의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등은 2만5000여명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자연재해 줄일 10년 계획 세운다

도, 2차 종합계획 용역 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3일 발주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의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약 14억 5000만원을 투입해 도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최근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대특전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서!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너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리실생 특묘 정식 할 수 있는 묘목

유리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맹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증묘

010-3690-2453